

Geopolitical Monitor

미국,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연장 중단과 반응

미국,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연장하지 않을 것(WSJ, 19.4.22)

-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180일간 허용했던 8개국에 수입 예외조치를 연장하지 않음. 5/2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예정
-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국들은 이란에 대한 최대 경제압박을 지속하고 확대하여 중동 안보를 위협하는 정권의 활동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성명
-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/2일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조치가 만료된 이후에도 제한적인 면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
-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요구 사항 충족을 합의한다면 미국은 이란과의 추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달

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에 따른 각국의 반응(CNN, 19.4.22)

- 중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반발. 경향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취한 일방적인 제재와 '장기적 관할권'에 반대하고 이란과의 협력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합법적이라고 성명
- 터키의 메블뤼트 차우쇼올루 외무장관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거부하고 주변국과의 관계 수립을 스스로 하겠다고 전달
- 인도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과거 미국의 원유 수입 제재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인정하지 않고 UN에 의한 제재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음
- 사우디와 UAE는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의 유가 정책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힘
- 한편,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이를 봉쇄하겠다고 위협

트럼프, 허먼 케인 연준 이사 선임 포기 시사(Bloomberg, WSJ 19.4.22)

-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허먼 케인이 자신을 연준 이사로 추천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며 그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힘
- 케인은 과거에 여직원을 성추행했고, 이를 무마하기 위한 돈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음
-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공화당의 4명의 상원 의원이 케인을 반대했고, 상원의 53석이 있는 공화당이 4표를 잃게되면 케인의 선임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였음
- 지난 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케인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연준 이사직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결국 사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
- 한편, 민주당 의원들은 스티븐 무어의 지명도 포기할 것을 요구.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케인의 지명 포기를 발판으로 무어를 연준 이사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
- 무어도 이혼한 전처에게 위자료 3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아 법정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